

# 2011년 노동시장 동향과 2012년 전망

동향분석팀

## I. 2011년 노동시장 개관

2011년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고용침체를 겪었지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내내 큰 폭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2011년에는 평년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1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4.2%, 2분기에 3.4%, 3분기에 3.5%(잠정)로 높지 않았지만, 취업자수는 1분기에 423천 명, 2분기에 402천 명, 3분기에 363천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고용탄력성으로 환산할 때 대략 0.4~0.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그 이전 시기의 0.2~0.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이는 또한 2010년에 경제성장률은 6.2%에 달했지만 취업자수는 32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던 것보다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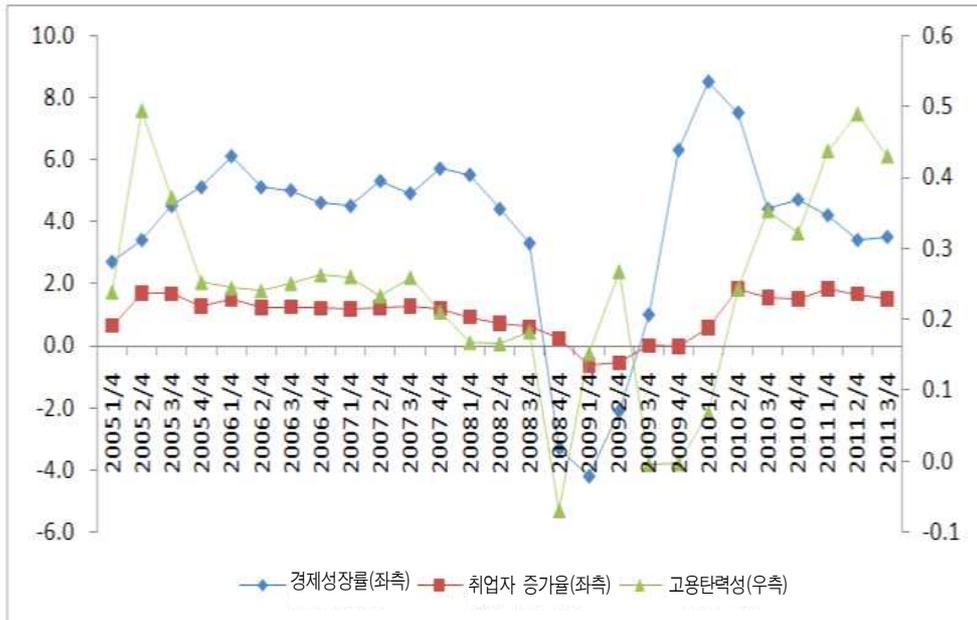
2011년과 유사한 상황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1998년 경제위기로 1999년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된 후 2000년에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취업자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후 2001년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취업자수 증가율은 2%에 이르러 고용탄력성이 0.5에 달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03년 초반 발생한 카드위기로 취업자수가 (-) 증가했으나, 2004년 고용탄력성이 0.41로 증가했던 것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비농가) 취업자수는 우리나라 경기동행지수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한다는 연구도 있으며, 원래 단기 고용탄력성은 시기에 따라 상당히 진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과거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에도 2011년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2011년의 취업자수 급증은 2010년 경기호전에 따른 뒤늦은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의 취업자 증가는 큰 폭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수는 2011년 8월 전년동

월대비 309천 명, 정규직 수는 13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조사 변경으로 2008년의 임금인상률은 계산하기 어려움.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은 좌측 축, 고용탄력성은 우측 축.

자료 : 통계청, KOSIS.

2011년(1~11월)의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기의 58.8%보다 0.3%포인트 증가했으나,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고용률 59.9%(1~11월)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ECD의 고용률 비교 기준인 15~64세로 국한할 경우 63.9%로 나타나 2007년과 동일한 고용률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2010년 동기에 비해 2011년 생산가능인구는 462천 명 증가했는데, 동기간 취업자수는 413천 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62천 명 감소해 경제활동인구는 351천 명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약 76%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셈인데, 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는 110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비경활 증가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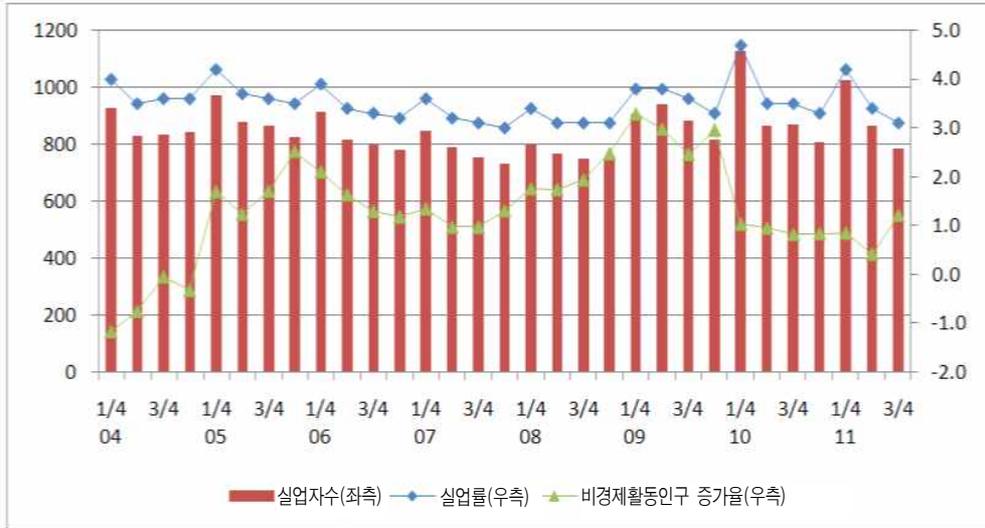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생산가능인구	39,170	39,598	40,092	40,590	39,154	39,579	40,072	40,570	41,032
(증가율)	(1.1)	(1.1)	(1.2)	(1.2)	(1.0)	(1.1)	(1.2)	(1.2)	(1.1)
경제활동인구	24,216	24,347	24,394	24,748	24,236	24,375	24,424	24,768	25,119
(증가율)	(1.0)	(0.5)	(0.2)	(1.5)	(1.0)	(0.6)	(0.2)	(1.4)	(1.4)
취업자	23,433	23,577	23,506	23,829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증가율)	(1.2)	(0.6)	(-0.3)	(1.4)	(1.2)	(0.7)	(-0.3)	(1.3)	(1.7)
(증가수)	(282)	(145)	(-72)	(323)	(283)	(159)	(-77)	(311)	(413)
참가율	61.8	61.5	60.8	61.0	61.9	61.6	61.0	61.0	61.2
(남성)	(74.0)	(73.5)	(73.1)	(73.0)	(74.1)	(73.6)	(73.1)	(73.1)	(73.2)
(여성)	(50.2)	(50.0)	(49.2)	(49.4)	(50.3)	(50.1)	(49.3)	(49.5)	(49.8)
고용률	59.8	59.5	58.6	58.7	59.9	59.6	58.7	58.8	59.1
(남성)	(71.3)	(70.9)	(70.1)	(70.1)	(71.4)	(71.0)	(70.1)	(70.1)	(70.5)
(여성)	(48.9)	(48.7)	(47.7)	(47.8)	(49.0)	(48.8)	(47.8)	(47.9)	(48.2)
실업자	783	769	889	920	787	768	894	926	864
실업률	3.2	3.2	3.6	3.7	3.2	3.1	3.7	3.7	3.4
(남성)	(3.7)	(3.6)	(4.1)	(4.0)	(3.7)	(3.5)	(4.1)	(4.0)	(3.6)
(여성)	(2.6)	(2.6)	(3.0)	(3.3)	(2.6)	(2.6)	(3.0)	(3.3)	(3.2)
비경황	14,954	15,251	15,698	15,841	14,918	15,204	15,647	15,803	15,913
증가율	(1.2)	(2.0)	(2.9)	(0.9)	(1.1)	(1.9)	(2.9)	(1.0)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기별로 보면 2010년 1/4분기부터 비경황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2011년 2/4분기에 가장 낮은 비경황 증가율을 보인 후 3/4분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4분기에는 긴 장마와 여름휴가, 추석 등으로 비경황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 비경황 증가율은 (-)로까지 떨어졌으므로 2011년 4/4분기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1/4분기에만 높았을 뿐 그 이후 하락하고 있어 활발한 취업자수 증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2] 실업자수,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 II. 2011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전 연령대 고용률 상승

2011년 고용성과는 취업자수 기준으로 볼 경우, 주로 50대가 주도(28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30대의 취업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젊은 층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 효과를 제외하려면 고용률을 보아야 한다.

청년층 중 고학력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15~24세를 제외하고 보면, 25~29세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기보다도 1.3%포인트 높은 69.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와 50대의 고용률도 지난해는 물론이고 2007년 동기보다 높는데, 특히 50대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였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수명 연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자 관련 각종 복지 및 고용대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 않지만, 이 역시 지난해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수						고용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2007	2008	2009	2010	2011
15~24세	1,530	1,419	1,360	1,375	1,387	12	25.8	24.0	22.9	23.0	23.1
25~29세	2,681	2,676	2,598	2,543	2,496	-47	68.4	68.6	67.5	68.2	69.7
30~39세	6,033	6,014	5,838	5,832	5,786	-47	72.8	72.9	71.3	72.0	72.1
40~49세	6,481	6,547	6,527	6,552	6,610	58	78.3	78.4	77.7	77.8	78.4
50~59세	4,090	4,299	4,492	4,786	5,073	287	69.7	70.7	70.4	71.0	71.6
60세 이상	2,635	2,652	2,716	2,754	2,904	149	38.4	37.5	37.1	36.2	36.8
전체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413	59.9	59.6	58.7	58.8	5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1월.

다음으로 <표 3>에서 인구변화와 고용률 개선이 2011년 취업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해해 보았다. 인구증가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 효과를 계산하려면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총 취업자수 증가분을 인구증가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와 고용률 개선으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로 나누어야 한다. 전자는 고용률이 2010년과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2011년 인구×2010년 고용률) - 2010년 취업자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 후자는 2011년 총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위 식의 결과를 빼면 얻을 수 있다.

<표 3>에서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2010년과 같다면 2010년 대비 2011년의 생산가능인구 변화로 인해 271천 명의 취업자수 증가가 있었을 것이며, 고용률 증가로 인해 142천 명의 취업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구증가 효과가 고용률 개선 효과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2010년 고용률을 가정했을 때: 가상의 2011년 취업자수(가)	2011년 실제 취업자수	(가) - 2010년 취업자수	2011년 고용률 증가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분
15~24세	1,383	1,387	8	4
25~29세	2,440	2,496	-104	57
30~39세	5,771	5,786	-61	14
40~49세	6,562	6,610	11	48
50~59세	5,033	5,073	247	40
60세 이상	2,864	2,904	110	40
전체	24,113	24,255	271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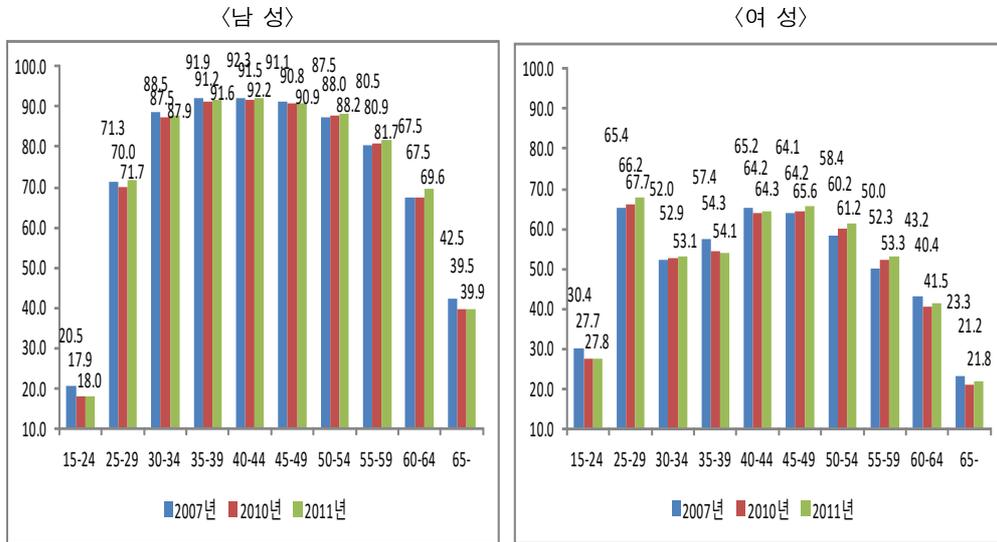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1월.

보다 취업자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인구증가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 효과가 고용률 증가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분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 증가가 취업자수를 보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도 인구효과가 중요했는데, 특히 15~19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다른 젊은 세대와 달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대에서 2010년 동기보다 2011년 1~11월에 고용률이 증가했으며, 2007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 30대, 40대,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 35~39세와 40~44세,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1월.

학력별로 보면,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 집단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전문대졸을 제외한 전 학력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전 학력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에서만 고용률이 소폭 감소했다.

〈표 4〉 학력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수						고용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2010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졸 미만	4,161	3,971	3,755	3,660	3,584	-76	66.1	66.3	65.6	65.2	65.3	
고졸	8,680	8,617	8,463	8,554	8,532	-22	70.8	70.7	69.2	70.1	70.8	
전문대졸	2,192	2,373	2,483	2,592	2,741	148	76.0	75.9	75.0	74.3	74.0	
대졸 이상	5,360	5,685	5,903	6,094	6,371	277	77.6	77.6	76.8	77.2	78.1	
남성	고졸 미만	1,940	1,836	1,732	1,704	1,671	-33	78.4	78.4	77.4	77.5	77.7
	고졸	5,243	5,191	5,096	5,152	5,079	-74	84.8	84.3	82.7	83.1	83.7
	전문대졸	1,312	1,409	1,485	1,547	1,647	100	89.6	89.9	89.2	89.2	90.0
	대졸 이상	3,688	3,901	4,043	4,123	4,313	190	88.7	88.9	88.5	89.0	89.5
여성	고졸 미만	2,221	2,135	2,022	1,956	1,914	-42	58.2	58.5	58.0	57.2	57.4
	고졸	3,437	3,425	3,367	3,402	3,454	52	56.4	56.8	55.6	56.7	57.6
	전문대졸	879	964	998	1,045	1,093	48	62.0	61.9	60.7	59.5	58.4
	대졸 이상	1,672	1,785	1,860	1,971	2,058	87	60.8	60.7	59.7	60.4	61.6

주: 졸업시기, 군대, 고령자에 저학력자가 많은 특성 등을 통제하기 위해 25~64세로 연령을 제한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1월.

보다 세분하여 보면,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학교 재학자가 대다수인 24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2007년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30대는 2010년과 비교해 고용률이 하락했으며, 40대는 2010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2007년보다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sup>1)</sup> 여성은 고졸 이하인 30대 여성과 전문대졸 이상인 40대 여성에서 고용률이 2010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 1) 경기가 좋아지면 입직만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이직도 활발해진다. 실직한 사람들의 비중을 볼 경우 남성 30대와 4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에서 2009년에 비해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7년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실직한 지 1년 이상인 사람들의 비중은 고졸 이하 30대와 40대의 경우 오히려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직 사유를 보면 휴폐업 등의 비중은 2009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 개인적 이유와 근로조건 불만족에 의한 이직 비중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직을 했지만, 30~40대 연령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워 재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 고용률 정체와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 2) 여성은 30대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고용률이 2010년보다도 떨어졌는데, 실직 1년 미만인 사람들과 실직 1년 이상인 사람들의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고용률이 증가한 30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경우 실직한 지 1년 이상인 사람들은 줄었으나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증가했다는 차이가 있다. 실직한 사유는 주로 개인사정이나 가사와 육아에서 증가했다. 여성들은 실직하면 이직 사유로 이와 같

〈표 5〉 학력별·연령별·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2007	2010	2011	2007	2010	2011
남성	15~24세	17.9	15.6	16.1	70.2	66.6	59.3
	25~29세	64.3	61.6	63.2	77.7	77.8	78.1
	30~39세	88.2	86.5	85.8	92.2	91.6	92.3
	40~49세	90.0	88.7	88.8	94.4	94.2	94.6
	50~59세	83.3	83.5	84.0	89.1	89.7	89.6
	60세 이상	52.1	50.1	50.7	41.9	40.8	42.7
여성	15~24세	20.0	18.2	18.3	73.8	70.6	72.5
	25~29세	53.3	55.9	55.9	72.1	70.8	72.6
	30~39세	54.0	50.2	49.6	55.9	56.6	56.6
	40~49세	65.6	65.8	67.5	61.0	60.0	59.1
	50~59세	55.0	57.6	58.2	53.1	51.2	54.0
	60세 이상	28.7	26.5	27.1	22.9	19.1	2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1월.

## 2. 상용직 중심 취업자 증가 지속 및 8월 이후 자영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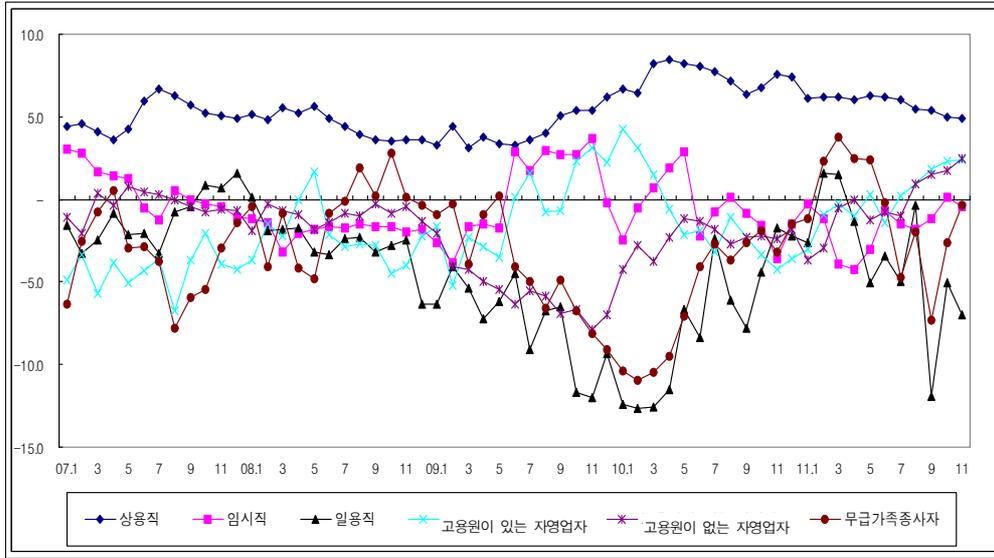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상용직 증가 추세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용직은 2007년 이래 감소하는 경향이 이어져 오다가 올해 초 잠깐 증가했을 뿐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임시직도 꾸준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2008년 이래 꾸준히 감소했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23.5%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은 지속되어 왔으나 2011년 8월 자영업자의 고용은 증가세로 전환하여 4개월 연속 고용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로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음식숙박업(주로 음식점

은 응답을 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왜 실직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 40대 전문대졸 이상에서도 고용률이 감소했는데 1년 미만 실직자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이유였고, 이들 집단에서는 실직 사유 중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2009년 5.91%에서 2011년 14.1%로 증가).

[그림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및 주점업)등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 연령층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자영업자 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고용률 증감을 요인분해해 보면 50~60대 연령층에서 인구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도 동반 상승함으로써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영업자의 취업자 대비 비중 및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2010. 11	2011. 11
취업자 대비 비중	25.8	25.3	24.3	23.5	25.9	25.4	24.3	23.5	23.1	22.9	23.0
연령별	20세 미만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20~29세	3.5	3.8	3.6	3.4	3.5	3.8	3.6	3.4	3.3	3.5
	30~39세	18.5	17.1	16.0	15.9	18.4	17.1	16.0	15.9	14.4	15.2
	40~49세	31.7	31.6	30.9	29.7	31.7	31.6	30.8	29.7	28.9	29.3
	50~59세	25.0	25.6	27.5	28.8	25.0	25.6	27.5	28.7	30.0	29.3
	60세 이상	21.2	21.7	21.8	22.1	21.3	21.7	22.0	22.1	23.3	2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7〉 자영업자 고용변동이 컸던 시기별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고용규모							고용증감				
	1997	1998	2001	2002	2003	2008	2009	'97-98	'01-02	'02-03	'08-09	'11.8~11 평균
전 체	5,901	5,616	6,051	6,190	6,043	5,970	5,711	-285	140	-148	-259	96
20세 미만	20	17	15	14	16	10	9	-3	-0	2	-1	-2
20~29세	431	390	326	323	310	228	203	-41	-3	-13	-25	20
30~39세	1,700	1,547	1,509	1,469	1,385	1,022	916	-153	-40	-83	-106	-78
40~49세	1,717	1,664	1,931	2,016	2,031	1,887	1,763	-52	85	16	-124	-19
50~59세	1,119	1,093	1,165	1,220	1,198	1,530	1,572	-26	55	-22	42	96
60세 이상	915	906	1,104	1,148	1,102	1,293	1,248	-9	44	-47	-46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국제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자영업자의 고용은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들어 향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4개월 연속 자영업자의 고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11월까지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20대 연령층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제조업 부문 8월부터 고용감소세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증가폭 둔화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경기가 차츰 회복됨에 따라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고용증가세로 전환했던 제조업 부문에서 올 8월부터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도

〈표 8〉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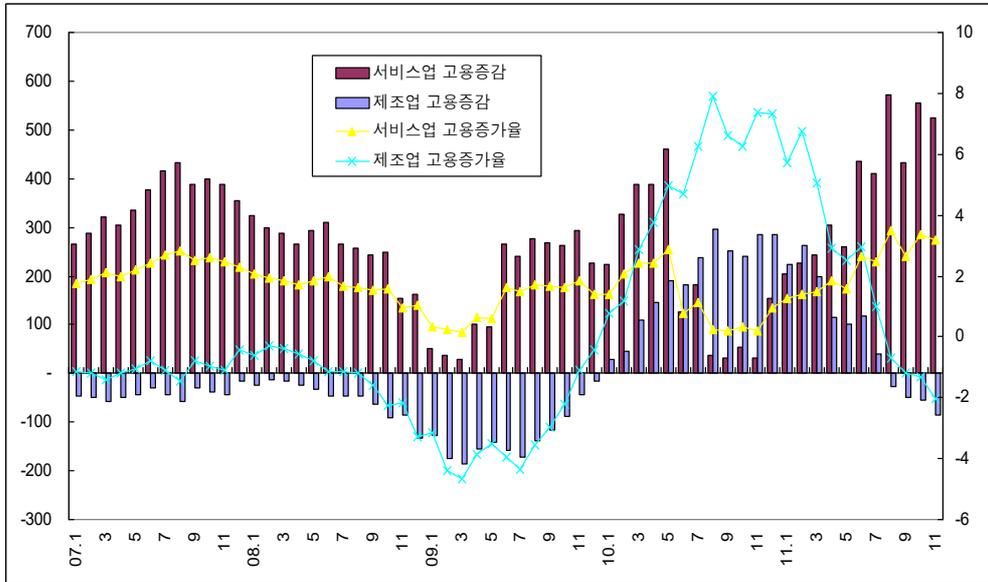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2010. 11	2011. 11
전 체		282	145	-72	323	283	159	-77	311	413	303	479
산업별	제조업	-42	-52	-126	191	-45	-44	-136	183	77	284	-85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56	268	174	204	379	32	525
	보건업 등	59	103	156	155	58	100	156	153	165	157	113
	도소매업	-38	-41	-32	-20	-40	-40	-36	-17	53	-44	109
	운수업	54	1	-1	33	57	5	-5	35	51	11	64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40	44	46	-24	-121	-127	-20
	건설업	16	-37	-91	33	18	-36	-95	34	-12	50	66
공공 여부	공공행정	-5	43	191	-71	-8	47	195	-76	-10	-129	-49
	민간	287	101	-263	395	291	112	-272	387	423	432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5] 제조업·서비스업 고용증감 및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9]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2010. 11	2011. 11
제조업	전 체	-42	-52	-126	191	-45	-44	-136	183	77	284	-85
	상용직	60	9	10	184	62	11	8	173	121	313	-25
	임시직	-71	-49	-73	4	-70	-48	-79	5	-36	-17	-31
	일용직	-13	-9	-33	-26	-16	-7	-32	-28	-3	-16	-1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8	-13	-9	11	-7	-12	-12	12	2	2	-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12	-18	-4	-3	13	-17	-4	-3	-13	6
	무급가족종사자	-10	-2	-3	22	-11	-2	-5	24	-5	15	-14
서비스업	전 체	356	260	179	200	356	268	174	204	379	32	525
	상용직	294	305	360	502	295	308	344	511	474	392	536
	임시직	94	-25	116	-46	100	-26	127	-45	-60	-175	-32
	일용직	-27	1	-87	-85	-34	6	-89	-87	-34	-1	-9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0	4	9	-33	-41	4	9	-31	0	-73	5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2	-31	-182	-78	53	-26	-181	-80	-2	-74	69
	무급가족종사자	-17	5	-39	-59	-17	3	-36	-64	1	-37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상용직 중심의 고용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10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던 제조업에서 2011년 10월부터 상용직도 고용감소세로 전환하여 11월 현재 제조업 상용직이 전년동월대비 25천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의 상용직이 각각 72천 명, 3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1~11월 평균) 서비스업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379천 명 증가하여 2010년 204천 명보다 고용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 증가폭이 30대 연령층을 주축으로 더 확대되었다. 반면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대 연령층에서의 서비스업 내 상용직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개월 동안 서비스업 내 50~6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4. 중소기업 주도 고용증가세 지속 및 대기업 고용 증가세로 전환

2011년 (1~11월 평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369천 명 증가하여 2010년 354천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시기였던 2010년 고용감소세로 돌아섰던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2011년 (1~11월 평균) 44천 명

〈표 10〉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2010. 11	2011. 11
전 체	소 계	420	236	247	517	423	250	236	509	434	511	349
	1년 미만	14	-136	71	181	34	-142	60	190	-124	-45	-136
	1~2년 미만	145	-36	-58	-4	148	-30	-60	-7	177	68	122
	2년 이상	260	408	234	340	242	422	237	326	380	487	363
중 소 기 업	소 계	337	117	-189	354	345	129	-197	354	369	281	486
	1년 미만	40	-146	44	188	64	-150	31	201	-158	-57	-104
	1~2년 미만	163	-29	-69	10	167	-24	-71	9	159	75	109
	2년 이상	133	292	-163	157	113	304	-157	144	368	263	481
대 기 업	소 계	-55	28	117	-31	-61	29	120	-43	44	23	-7
	1년 미만	-29	10	27	-7	-31	8	29	-12	35	12	-31
	1~2년 미만	-19	-7	11	-14	-20	-6	11	-15	18	-7	13
	2년 이상	-7	25	79	-10	-11	27	81	-16	-9	18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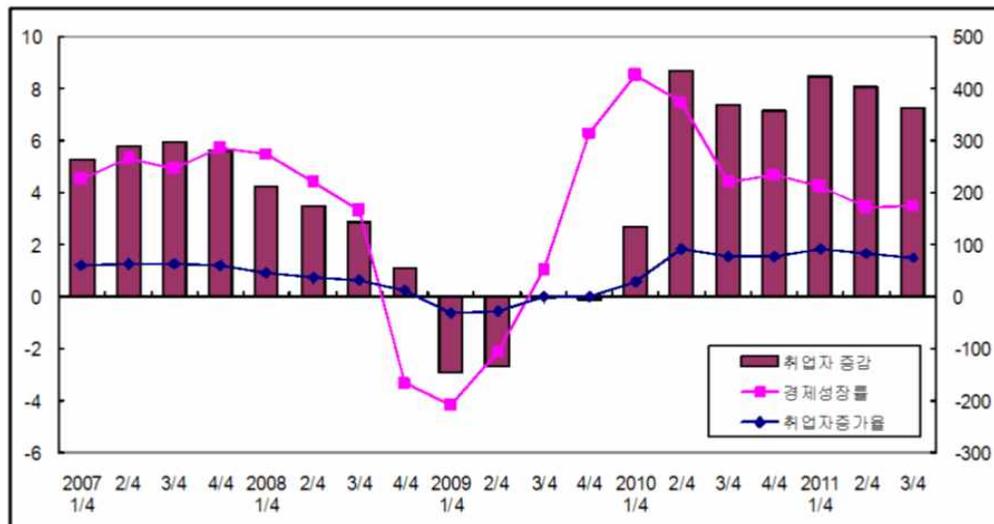
2011년(1~11월 평균) 근속연수별 고용증감을 보면 1년 미만 근속자가 전년동기대비 12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 측면에서의 채용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III. 2012년 고용전망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 말~2011년 초에 4~5% 안팎으로 발표됐지만 3/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현재까지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7%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1년 2/4분기 이후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12월 현재 정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수정 전망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올해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2011년 11월까지 평균 413천 명이 증가하여 2010년 311천 명보다 고용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6]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를 추이

(단위 :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고 이에 따른 고용감소세는 200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0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사정은 개선되었으나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력성은 0.223을 기록함으로써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3.8%를 기록하더라도 고용사정이 상당히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2011년 고용탄력성은 0.44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준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해보다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된다면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형 3%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국제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2011.5)에서 3.8%(2011.11)로 하향 조정하여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 한국개발연구원은 11월 3.8%로 발표했다가 12월 0.4%포인트 하락한 3.4%로 발표하였다.

〈표 11〉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 ·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1996	439	7.2	2.2	0.299
1997	361	5.8	1.7	0.300
1998	-1,276	-5.7	-6.0	1.053
1999	353	10.7	1.8	0.165
2000	865	8.8	4.3	0.484
2001	416	4.0	2.0	0.496
2002	597	7.2	2.8	0.387
2003	-30	2.8	-0.1	-0.049
2004	418	4.6	1.9	0.409
2005	299	4.0	1.3	0.335
2006	295	5.2	1.3	0.249
2007	282	5.1	1.2	0.239
2008	144	2.3	0.6	0.268
2009	-71	0.3	-0.3	-0.943
2010	323	6.2	1.4	0.223
2011	400	3.8	1.7	0.446
2012	263	3.7	1.1	0.289

주 : 2011년, 2012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표 12〉 2012년 경제전망

(단위: %, 만 명)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3.8	3.8	3.8	3.4	3.8	3.7	3.2	4.2	3.8
민간소비	2.9	2.1	2.5	2.6	3.6	3.2	2.8	3.5	3.1
설비투자	2.9	2.1	2.5	0.3	7.9	4.2	3	5.5	4.3
상품수출	14.9	8.7	11.6	3.5	6.4	5.0	5.4	12.2	8.9
취업자수	41	39	40	31	26	28	-	-	30
실업률	3.8	3.2	3.5	3.6	3.2	3.4	3.7	3.2	3.5

주: 2011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한국은행(2011), 「2012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2011), 「2012년 경제전망」.

2012년에는 3%대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수준에 크게 밀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 수준이며, 이에 따라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26만 명 내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고용창출력은 2011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은 2010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비경제활동 인구가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의 고용감소는 희망근로 등 공공정책의 실시로 전년 대비 71천 명 감소에 그쳤다. 2010년에는 6.2%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기저효과로 323천 명 증가에 머물렀다. 올해 3%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0년의 기저효과와 시간제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용은 성장에 따른 고용통계의 기저효과가 매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은 2011년의 고용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성적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고용증가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고용사정이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1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상밖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폭은 상당히 컸으나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예외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고용률(1~11월 평균)은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증가한 58.6%를 기록하였으나

〈표 13〉 2012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 천 명)

	2011			2012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3.8	3.8	3.8	3.4	3.8	3.7
생산가능인구	40,938	41,165	41,051	41,401	41,628	41,514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14	25,088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1	61.0	61.3	61.0
취업자	24,016	24,449	24,232	24,294	24,690	24,492
(증가율)	1.7	1.6	1.7	1.2	1.0	1.1
(증감수)	412	395	403	279	241	260
실업자	947	765	856	940	827	884
실업률	3.8	3.0	3.4	3.7	3.2	3.5
고용률	58.7	59.4	59.0	58.7	59.3	59.0
비경제활동인구	15,976	15,951	15,963	16,167	16,111	16,139
(증가율)	0.6	0.9	0.8	1.2	1.0	1.1

주 :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2011), 「2012년 경제전망」.

20~25세 미만 청년층은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3.5%에 불과하였다. 이에 2012년에는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2011년 대비 40% 확대, 청년인턴제의 2011년 대비 20% 확대 실시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KL**